

태고종 안정사 이전불사 '제동'

주민 반발·문화재청 지표조사 재요구로 추진 불투명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위치한 전년도 고종 21년(1896년) 건립된 태고종과 태고종의 소유권 분쟁 끝에 아파트용지로 매각돼 태고종측이 이전불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실시 통보로 뻘뻘하게 걸렸다.

분규사찰인 안정사가 세인의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0월, 안정사 조계종측 관리인 박 모 스님이 조계종 소유로 돼 있는 대웅전 등 사찰토지 730평을 판권이 계되었다. 이어 태고종측은 판당 등이 매각돼 안정사 보존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 2005년 안정사 일대 토지 1900평을 조계종측이 매각한 동일 회사 에덴건설에 팔았다. 안정사의 정통성과 맥을 유지

하는 것은 사찰이전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태고종측은 1976년 현대 중스님들의 모금으로 서울시로부터 불허받은 법당 부지 외 부지를 처분해(대금 110억) 현재 경기도 양주시 장흥리에 토지 3만8000평을 매입해 불사가 80%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설영주씨 등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전년도 고종 21년(1896년) 건립된 태고종측은 1976년 현대 중스님들의 모금으로 서울시로부터 불허받은 법당 부지 외 부지를 처분해(대금 110억) 현재 경기도 양주시 장흥리에 토지 3만8000평을 매입해 불사가 80% 진행된 상태다.

급기야 안정사의 매각 취소와 보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올 2월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이 2개월 동안 지표조사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대방 등의 이전을 권고한다는

차원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에 이전 불사가 순풍을 타는 것 같더니 국정감사 질의와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로 불사 이전이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문화재청 사찰로써 종교유지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엄격히 적용하고 문화유산 보조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중히 해야 했다"며 아파트 허가가 낫다"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안정사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발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고종 안정사 주지 백우 스님은 "사찰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불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찰 보존을 위해 다방

면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이전 불사 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비대위측에서 현실에 맞는 대안만 제시한다면 언제든 진지하게 고민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비대위는 그냥 보존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백우 스님은 "이미 올해 초 서울시에서 안정사 일대를 조사한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기왓장 하나 나온 것이 없었다"며 "이미 종결된 사항으로 또 다시 문화재청에서 지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태고종 안정사 신도 500여명은 11월 19일 대웅전에서 안정사 이전 불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결의서를 발표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9대 회장 명성 스님

제6차 비구니회 총회서 만장일치 재선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9대 회장 명성 스님(사진)이 재추대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20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무사 3층 강당에서 제6차 총회를 열고 명성 스님(창도 운문사 승가대학원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4년이다.

명성 스님은 1952년 합천 해인사에서 수행 스님으로 은사로 득도, 1958년 승주 선암사 강연 대교과를 졸업했다. 이후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

계를 수지했다. 1970년 창도 운문사 강사로 취임한 뒤 운문사 승가대학장과 승가대학원장을 맡아 후진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 8대 비구니회장을 맡아왔다.

한편 비구니회는 이날 총회에서 ▲원로회의 신설 ▲임원의 임기와 선인 ▲운영위원회 구성 ▲법칙방법 ▲임원 자격 등 회칙을 개정했다. 특히 임원 자격 중 원로는 승남 50세, 법계 명덕, 세남 72세 이상이어야 추대하도록 했



다. 회장은 승남 40세, 법계 명덕, 세남 65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김주일 기자

선암사 내분 '일단락'

총무원·재적승간 내달 새 주지 선출 합의

주지 선출 문제로 내용을 겪었던 태고종 순천 선암사가 내달 새 주지를 선출하기로 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11월 21일 선암사 재적승들로 구성된 선암사 전산대회(총회)를 열어 새 주지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고종 측이 임명한 승조 스님과 선암사 재적승들이 선출한 설운 스님을 놓고 팽팽히 맞서 지난 해 8월부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21일 양측이 선암사 정상화를 위해 새 주지 선출에 합의하며 선암사 내분이 일단락 됐다.

선암사의 한 스님은 "올해 안으로 새 주지를 선출하기 위한 전산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귀뜸했다.

'선암사 사태'는 지난해 8월 태고

종 총무원이 승조 스님을 주지로 발령했으나 당시 주지인 금용 스님이 이를 거부하자 승조 스님 측이 같은 해 10월 경비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선암사 종무소를 장악했고 한 달 뒤인 11월 금용 스님 측이 신도 등을 동원, 다시 종무소를 탈환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보였다.

이후 수습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양측이 대화를 거부하며 냉각기를 거쳤다. 지난 1월 사태 해결을 위해 양측은 주지 선출 및 운영에 관한 문제는 선암사 수습대책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했지만 투표 자격을 놓고 또 다시 이견을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에는 선암사 재적승들이 총무원 측의 전산대회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대회를 강행해 설운 스님을 새 주지로 선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김주일 기자

성철스님 '백일법문' 대중강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12월 3일부터 10회에 걸쳐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대중강좌를 연다. '백일법문'은 성철 스님이 해인총림 방장에 취임한 1967년 하얀겨울에 매일 설법한 것을 교계에서 정리해 펴낸 책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성철 스님의 중도사상과 함께 선(禪)과 교(敎)의 융합을 강조한다. 원택 스님의 '불교의 본질'을 시작으로, 해인사 불련암 일묵 스님의 '중도·원시불교사상', 불교학연구소 서재영 박사의 '중관·유식·천태·화엄사상', 전 해인사 강사 원철 스님의 '선종사상' 등이 강의될 예정이다. 장소는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이며 오후 7-9시 진행된다. 동참비는 15만원.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02)733-7275 김강진 기자

어린이 포교 활성화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1박 2일간 흥덕대학교 조지원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2007 어린이포교지도자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진대회에서는 어린이포교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어린이포교 현황과 과제' 등의 강의와 토론,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위사찰의 견문, 현장에 맞는 어린이포교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교원의 2008년 어린이포교방향 발표와 우수 어린이지도자 활동 지원금 수여식도 진행된다. (02)2011-1902 김강진 기자

고창군사회복지관 문 '활짝'

지역민·노인 위한 프로그램 다채

조계종 제24교구 고창 선운사에서 수탁운영하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이)이 11월 29일 개관식을 거행한다.

고창군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역주민과 노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복

지관으로 건립됐다. 고창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적극 반영한 셈이다. 프로그램으로는 노래방·복합 오락·이미용실·체력단련실은 물론 대강당·소강당·장기바둑실까지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해 서예·육아·영어를, 노인을 위해서는 한지공예·다도·장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본 건물 오른쪽에는 1층 건물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했다. 이는 노인이용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센터는 가정봉사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 직원은 24명으로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생활지도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06)3561-1185 김강진 기자

본지 '사람이 희망이다'

불기법 기획부문 수상

본지의 창간 13주년 특집 기획기사 '사람이 희망이다'가 2007 한국불교기자협회상 기획부문 수상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남배현, 이하 불기법)는 11월 21일 한국불교기자협회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불기법 대상(선원년 기자상)'에 주간불교유공·신종일 기자의 '신정아 사건 연계 기사', 기획부문에 현대불교 공동취재단의 '사람이 희망이다', 보도부문에 법보신문 김현태 기자의 '성북구정장 교동협 백지화'를 각각 선정했다.

본지가 지난 10월 17일자로 발행한 창간 13주년 특집호에 게재한 '사람이 희망이다'는 불교계 인재불사의 필요성과 현황을 짚은 기획기사. 심사위원단은 "인재불사의 시급성을 알리는 중요한 의제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시상은 12월 3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열리는 '한국불교연인의 밤'에서 이뤄진다. 여수령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 (소비자가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정승리]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

봉 축 제39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 초청의 말씀 ----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 발전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을 모시고 『제39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1('07)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황일면**
대한민국 군불교 후원회장 **정인악** 합장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법사 일동

1부
제39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 총무원장 스님 법어
- 유공자 포상

2부
축하공연
- 초청 가수 (강진)
- 국방부 타악연주팀 등

▶ 일 시 : 불기 2551('07)년 11월 30일(금) 오후6시
▶ 장 소 : 하림각(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
▶ 문 의 : 군종교구 총무실 전화 02-749-8646, 전승 02-796-0221
▶ 홈페이지 : www.gunindra.com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국군장병에게 부처님의 손길을 전하는 고귀한 불사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 제일은행 325-20-203673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 후원금은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군포고 일선에 전달됩니다.
※ 축하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